

5. 경제활동

1) 경제활동참여

〈그림 V-1〉 성별 경제활동인구

(단위 : 천 명, %)
■ 여성 ● 남성 ○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□ 남성 경제활동참가율



주 :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, 전투경찰, 공익근무요원,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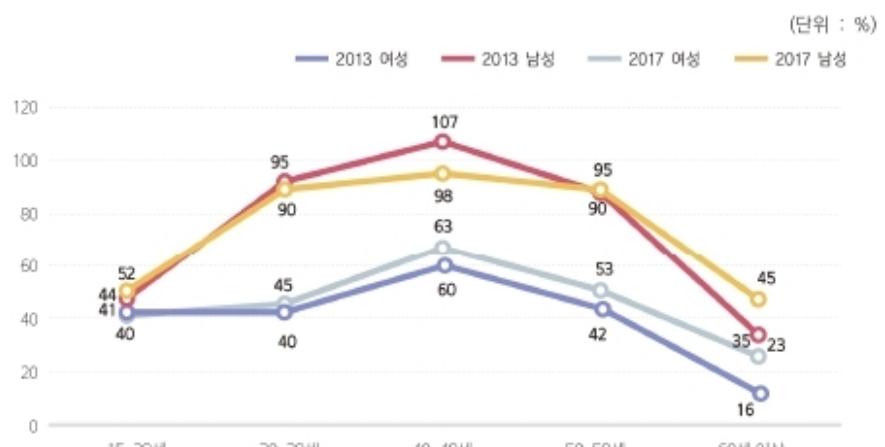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성인지통계시스템.

- 2011년 울산광역시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209천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45.8%였으며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 187천명으로 참가율 40.8%로 최하점을 보인뒤 점점 상승하여 2017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26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7.4%으로 최고점을 보임. 남성의 경우 2011년에 경제활동인구 351천명, 경제활동참가율 75.2%를 보이며 비슷한 추세를 계속보이며 유지되다 201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 379천명, 경제활동참가율은 75.9%로 다소 감소함.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여성과

■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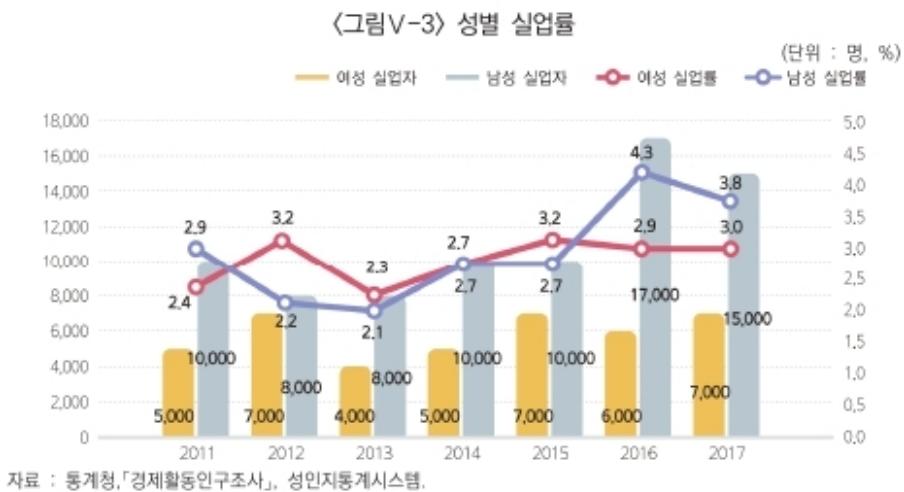
남성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,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인구의 절반이 안 됨.

〈그림V-2〉 연령별 고용률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동남지방통계청, 「2018년 울산 노년의 삶」.

- 2013년-2017년 사이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를 성별로 살펴보면, 2013년 여성의 고용률은 15세~29세 40%, 30세~39세 40%를 보이다 40세~49세의 고용률 60%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, 50세~59세에서 42%로 감소하여 60세 이상 고용률은 16%로 나타남. 2017년 여성의 고용률은 15세~20세 41%, 30세~39세 45%, 40세~49세 63%로 상승하다 50세~59세 53%로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23%로 나타남. 2013년에서 2017년 여성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음.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성인지통계시스템.

- 울산광역시 시민의 실업률을 살펴보면, 2011년 여성실업자는 5,000명, 실업률은 2.4%로 나타났으며 남성 실업자는 10,000명, 실업률은 2.9%로 나타남. 2012년에는 여성실업자수가 증가하여 7,000명, 실업률은 3.2%로 나타났으며, 남성의 실업률은 감소하여 8,000명, 2.2%로 나타났음. 2013년부터 남녀모두 실업이 증가하였으며, 2017년 여성실업자는 7,000명, 실업률은 3.0으로 나타났고, 남성은 2016년 17,000명, 4.3%으로 최대 실업률을 보이다 2017년 다소 감소하여 15,000명, 실업률은 3.8%로 나타남.


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성인지통계시스템.

■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

- 2017년 울산광역시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372,000명으로 그 중 여성은 119,000명, 남성은 253,000명으로 나타났으며, 여성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육아, 가사가 73.1%로 가장 높았고, 재학,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이 15.8%로 나타남. 남성의 경우 기타사유가 38.7%로 가장 높았으며, 재학, 진학준비가 37.8%로 나타남.

〈그림V-5〉 성별 직업별 취업자 (2016)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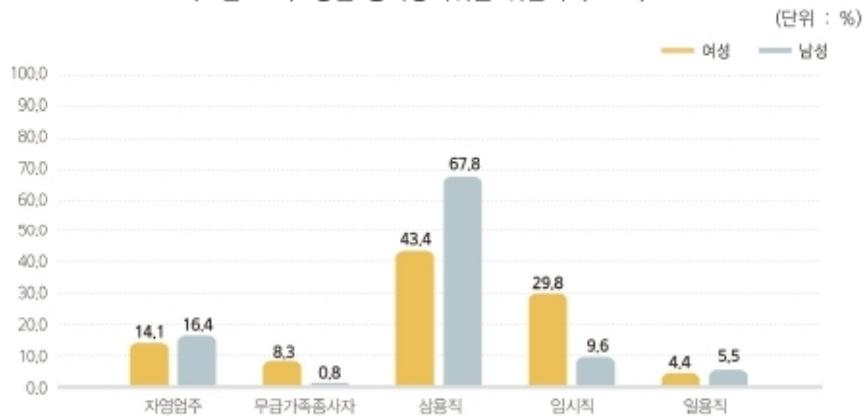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성인지통계시스템.

- 2017년 울산지역 성별 직업별 취업자에 현황을 살펴보면,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직에 23.4%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, 판매직 17.1%, 서비스직 16.6%, 사무직 15.6%, 단순 노무직 15.1%, 기능직과 장치, 기계조립이 5.4%, 농림어업, 숙련직이 1.5%로 나타남. 한편 남성의 경우 장치, 기계조립이 27.9%로 가장 많았으며, 기능직 23.0%, 사무직 15.0%, 전문가 및 관련직 10.7%, 단순노무직 9.0%, 판매직 6.0%, 서비스직 4.9%, 농림어업숙련직 1.6%, 관리직이 1.4%로 나타남. 성별에 따라 직업이 차이가 있으며,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직, 남성은 장치, 기계조립이 가장 많았음.

II. 통계요약 및 분석 ■

〈그림V-6〉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(2016)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성인지통계시스템.

- 2017년 울산지역 성별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, 여성과 남성 모두 상용직이 가장 높으나 여성은 43.4%, 남성은 67.8%로 성별 간 격차가 있음. 임시직의 경우 여성은 29.8%로 남성 9.6%에 비해 많았으며, 자영업주는 여성이 14.1%, 남성이 16.4%로 나타나 남성 자영업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 한편 무급가족봉사자는 여성이 8.3%로 현저히 높았으며, 일용직은 여성이 4.4%, 남성이 5.5%로 남성이 더 높았음.